

길게 읽기 - 캠퍼스 명칭

▶1면에서 이어짐

하지만 이 중 국제캠에 등록된 외국인 학부과정 재학생 수는 409명으로 서울캠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를 보이면서, 국제캠이 국제화 역량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현재 양 캠퍼스 국제교류처가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상태라 더 이상 ‘국제화 프로그램’이 국제캠의 ‘캠퍼스 특성’으로까지 연계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명칭’ 논란에 관한 구성원들의 우려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국제’라는 명칭 사용이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신문이 조사했던 9일에서 13일까지 5일간 ‘캠퍼스 이원화 구성원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7번 문항 ‘현재의 캠퍼스 명칭이 본·분교 인식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참여자의 71.6%가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국제’ 명칭 사용

불필요한 오해 불러올 수 있어

이 같은 불만사항은 ‘타교의 표기방식’과 ‘서울’이라는 명칭의 특수성으로부터 기인한다. 국내 지방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본·분교 명칭은 ‘건국대학교 서울-글로벌캠퍼스’, ‘한양대학교 서울-ERICA캠퍼스’, ‘동국대학교 서울-경주캠퍼스’ 등 대다수의 학교가 소재지가 서울인 본교에 ‘서울캠퍼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경인(응용수학 2011) 양은 “애초에 타 학교 표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특수 지역 이름이 들어간 명칭은 편견을 가지기 쉽다”며 “현재 우리학교의 명칭은 외부에서 보기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불완전한 통합으로 학내 구성원의 반발을 사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시 ‘서울-글로벌캠퍼스’라는 명칭을 사용중이다.

그간 우리학교의 캠퍼스 명칭에 관한 논의는 본·분교 문제와 궤를 함께해왔다. 우리학교는 1979년 3월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및 재정 대학 증원 억제 정책’에 따라 지금의 국제캠이 위치한 곳에서 통칭 ‘수원대학’을 건립, 1979년 5월 기공식을 진행했다. 이후 ‘수원캠퍼스’의 명칭

을 갖고 운영되오던 국제캠은 2003년, 당시 학교가 대외적으로 홍보해 왔던 것과는 달리 국제캠이 ‘법적 분교’였음이 한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드러나 2000년대 중반 본·분교 문제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된다. 그와 함께 당시 명칭이던 ‘수원캠퍼스’가 문제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캠퍼스 명칭변경은 2005년 본·분교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실무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약 2년 만에 이뤄졌다.

캠퍼스 명칭이 변경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수원캠퍼스’에서 ‘국제캠퍼스’로의 명칭변경 초기 과정에서 서울캠퍼스(서울캠) 구성원들은 본·분교 문제에 관해 분분한 입장을 보였다. 2005년 10월 서울캠 총학생회(총학)이 서울캠 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에선 ‘본·분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2,136명으로 54.6%를 차지했다. 반면 ‘본·분교 문제 해결하지 말자 및 관심이 없다’고 답한 학생은 1,738명으로 44.4%를 차지해 부정적인 의견 또한 상당했다. 이처럼 캠퍼스 명칭변경은 시작부터 험난한 절차를 예고했다.

양 캠퍼스의 본격적인 명칭변경 진행은 2006년 6월 1일 첫 번째 ‘캠퍼스 명칭변경 추진위원회(추진위)’ 회의가 시작되면서 부터다. 당시 양 캠퍼스의 총학생회는 회의를 위한 캠퍼스 명칭 후보를 정하는 두 번의 공모전을 시행했다. 방식은 2차에 걸친 공모전 이후 6배수의 명칭을 선정해 이를 추진위 회의를 거쳐 결정하는 형태였다.

당시 공모전에는 ‘문화-창조캠퍼스’, ‘인문사회의학-국제공학캠퍼스’, ‘평화-아태캠퍼스’, ‘평화-창조캠퍼스’, ‘평화-문화캠퍼스’, ‘기초과학-응용과학캠퍼스’의 명칭이 결정됐으며, 곧바로 수원캠 총학측은 위 6가지 명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결과는 총 2,306명이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인 1,311명이 찬성한 ‘인문사회의학캠퍼스’와 ‘국제공학캠퍼스’가 선택됐다. 이를 바탕으로 수원캠 총학 측은 6월 1일에 추진위 회의에서 서울캠은 ‘인문사회의학캠퍼스’로 수원캠은 ‘국제공학캠퍼스’로 양 캠퍼스 명칭을 제출하기로 했다.

뒤이어 추진위가 결정한 캠퍼스 명칭은 양 캠퍼스 학부 총학, 대학원 총학, 노동조합, 교수협의회, 동문회 등 각 구성원별 동

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기로 결정했다. 동의절차는 2006년 6월 23일까지 3주에 걸쳐 진행되기로 했으며 이후 총장의 승인, 법인의 동의와 이사회 의 승인을 거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수원캠 측, ‘인문사회의학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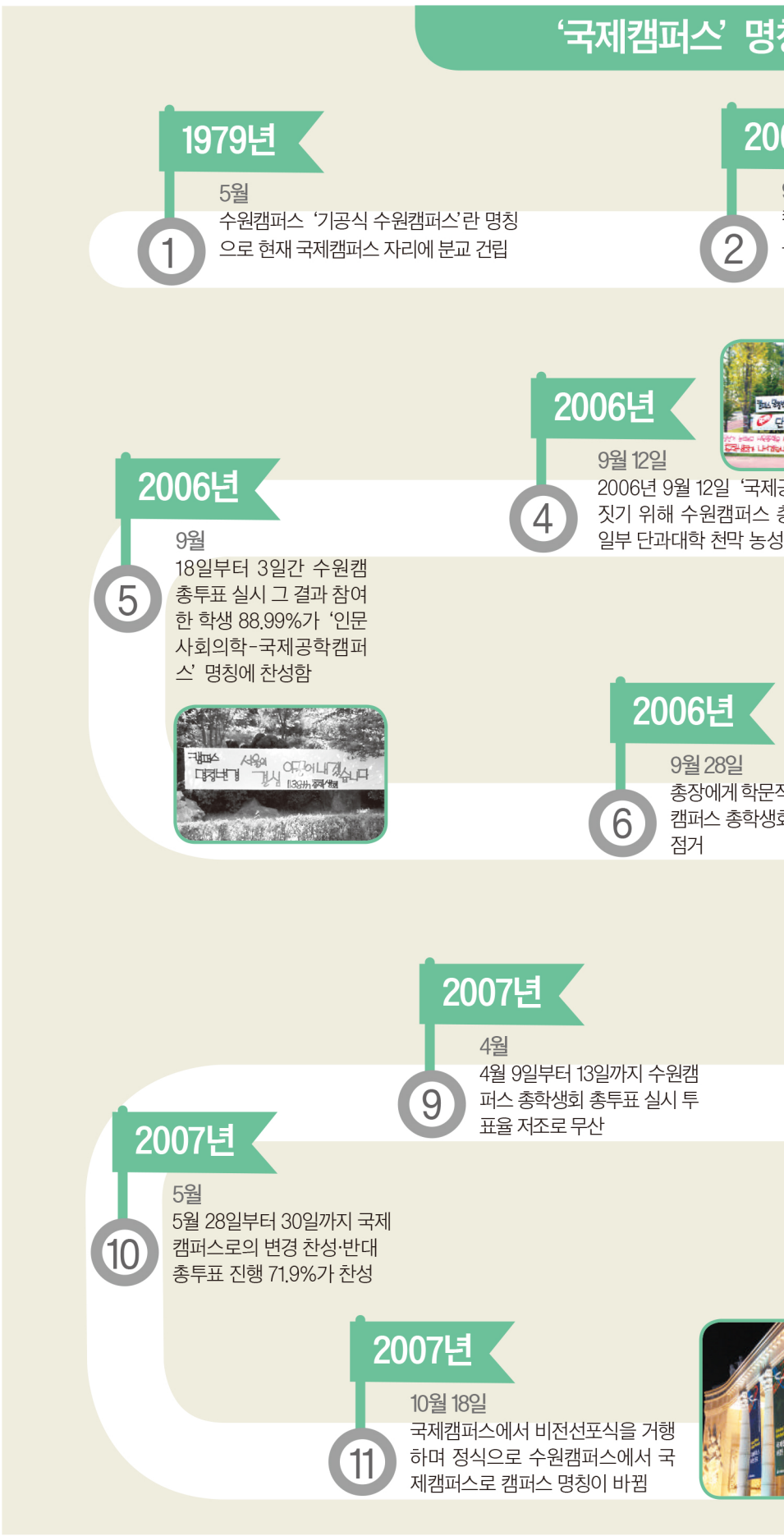
국제공학캠퍼스’ 명칭 제안

그러나 잘 굴러가던 캠퍼스 명칭변경은 첫 위기를 맞게 된다. 1차 추진위 회의가 있고 난 뒤 38대 서울캠 총학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김동현(사회과학 2001) 사무국장은 “서울캠 총학은 캠퍼스 명칭변경에 합의한 바가 없어 변경 여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우선 수렴해야 할 것”이라며 명칭 변경 제안을 유보한 것이다. 이후 7월 6일에 있었던 추진위 회의에서 서울캠 구성원들은 ‘인문사회의학캠퍼스’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당시 서울캠이 반발한 이유는 명칭과 시기의 문제 때문이었다. 6월 당시 추진위 회의 보고에 따르면 서울캠은 총학, 교직원 노동조합 등 80%가 반대 뜻을 표명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인문사회의학캠퍼스’란 캠퍼스 명칭이 서울캠의 모든 계열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서울캠에서는 무용학부, 음악대학, 미술대학, 이과대학에서 반대 성명서를 내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김 사무국장은 “캠퍼스 명칭 변경은 이뤄져야 하나, 구성원의 80%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동의를 구할 단계가 아니다”며 시기가 이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반면 수원캠 총학을 비롯한 다수의 단과대학이 수원캠을 ‘국제공학캠퍼스’로 확정을 짓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9월 12일부터 수원캠 총학과 일부 단과대학 학생회는 외국어대학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자, 수원캠 총학생회 측은 14일부터 단식으로 수위를 높였다. 당시 총학 박한울(국제경영학 2003) 부회장은 “캠퍼스 명칭변경 사안이 이행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진행할 것”이라며 입장을 공고히 했다. 단식과 더불어 18일부터는 3일간 후보 명칭 ‘인문사회의학-국제공학캠퍼스’의 찬반을 최종 수렴하는 수원캠퍼스 총투표가 시행됐다. 결과는 참여한 4,738명의 학생 중 4,317명의 찬성표로 찬성률 약 88.99%

구성원 사이에서도 캠퍼스 명칭 의견



2016학년도 전기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전공

| 구 분  | 학 과      | 전 공                      |
|------|----------|--------------------------|
| 석사과정 | 글로벌기업법학과 | 글로벌기업법전공, 미국법전공, 자산관리법전공 |
|      | 공공법학과    | 입법전공, 공법전공, 경찰·안전법전공     |
|      | 중국법학과    | 중국법전공                    |
|      | 지적재산법학과  | 지적재산법전공, 인터넷법전공          |
|      | 조세법학과    | 조세법전공                    |

● 장학제도

| 구 분    | 장학금          | 지급기준                        |
|--------|--------------|-----------------------------|
| 공무원장학  | 수업료 25%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 공무원      |
| 공공기관장학 | 수업료 25%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재직자 |
| 외국인장학  | 수업료 30%      |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
| 평생교육장학 | 수업료 20%      | 사이버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
| 조교장학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조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임용된 자         |

※ 국가고시장학, 성적장학, 모범장학, 총장장학 등 기타 장학제도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강의 - 주중(아침) 및 주말 개설

- **경희전형 일정**
- 원서접수: 2015. 11. 16(월) ~ 12. 4(금)
  - 전 형 일: 2015. 12. 5(토) 10:30
  - 접수방법: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접수(khsb2670@khu.ac.kr)

● **전원료: ₩50,000**(입금계좌: 하나은행 278-910030-40505 / 예금주: 법무대학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대학교(학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학업계획서 1부

※ 문의처  
· 전화: 02 - 961 - 0905 · 홈페이지: interlaw.khu.ac.kr

핵심교양 이수면제 신청안내

- **신청대상** : 2004~2007학번 재학생 중, 급급기 현재 면제 받고자 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지 않으며 이수하지 않은 자
- **이수면제 대상과목(학점부여 없음)**
  - 가. ‘대학영어’ 나 ‘사고와 표현’, ‘보고서작성과 발표’, ‘성명과학논문작성법’ 등
  - 다. 전산영역의 경우 이수요건 폐지로 인하여 이수면제 제도 폐지
- **면제기준 및 자격**
  - 가. 대학영어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 1) 공인영어 시험능력시험 TOEFL, TOEIC, TEPS 일정점수 이상자
    - 2) 국제화 추진 TOEFL, TOEIC, TEPS 전형 입학자
    - 3) 영어권 국적 외국인 특례인정자
    - 4) Intensive Program(DEEP, LEAP, REACH)이수자
    - 5) 국제교류처주관 영어권 학점교류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

[이수면제 기준표]

| 면제종류          | 계열             | 대학                                            | 면제기준             |           |           |           |                      | 면제내용 |
|---------------|----------------|-----------------------------------------------|------------------|-----------|-----------|-----------|----------------------|------|
|               |                |                                               | TOEFL<br>CBT     | IBT       | TEPS      | TOEIC     | G-TELP               |      |
| 공인영어시험<br>능력자 | 외국어계열<br>사회계열  | 외국어대학<br>국제·경영대학                              | 207<br>이상        | 76<br>이상  | 600<br>이상 | 700<br>이상 | 66<br>(Level2)<br>이상 | 과목면제 |
|               | 공학계열<br>자연과학계열 | 전자정보대학<br>응용과학대학<br>(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br>우주과학과) | 193<br>이상        | 69<br>이상  | 551<br>이상 | 650<br>이상 | 57<br>(Level2)<br>이상 |      |
|               |                | 공과대학<br>생명과학대학<br>응용과학대학(응용화학과)               | 190<br>이상        | 68<br>이상  | 530<br>이상 | 640<br>이상 | 56<br>(Level2)<br>이상 |      |
|               |                | 예체능<br>계열                                     | 체육대학<br>예술·디자인대학 | 147<br>이상 | 51<br>이상  | 400<br>이상 | 510<br>이상            |      |

- \*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 \* Intensive Program 이수자들은 증명서류 제출한 자에 한하여 상황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며, 통과자에 한하여 과목을 면제한다(신청 기간에 제출)
- \* 공학인증(ABEEK)대상자는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영어 학점 인정 불가

나. 외국어대학 대학영어 / 전문영어 이수 면제기준  
※ 외국어대학 핵심교양 이수면제 예외사항  
- 외국어대학은 학과적 특성에 의해 특정과목 수강으로 ‘대학영어’와 ‘전문영어’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음  
- 자신의 재전공이 아닌 타 전공의 외국어, 2단계 이수를 하는 것으로 핵심교양 이수를 대체할 수 있음

[대체교과목]

|          | 제1 단계 | 제2 단계    | 총 이수학점 |
|----------|-------|----------|--------|
| 초급중국어회화1 |       | 초급중국어회화2 | 6      |
| 일본어강독1   |       | 일본어강독2   | 6      |
| 스페인어1    |       | 스페인어2    | 6      |
| 러시아어1    |       | 러시아어2    | 6      |
| 초급프랑스어   |       | 초급프랑스어2  | 6      |

※ 상기과목으로 이수면제를 신청하는 외국어대학 소속 학생은 외국어대학행정실(T0301201~2201)에 별도 접수 바랍니다.

다. 사고와 표현 영역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1) 1단계: 독후감 평가 80점 이상을 득한 후 구술시험 통과자에 한하여 2단계 시험 자격 부여  
2단계: 글쓰기 시험 80점 이상

[이수면제 기준표] \* 신청서 제출은 매 학기 지정하여 신청 기간에 제출한다.

| 단계  | 내용                               | 평가 방법                       | 학점           | 비고                        |
|-----|----------------------------------|-----------------------------|--------------|---------------------------|
| 1단계 | 독후감 평가<br>(관정도서 중 3편을 읽고 독후감 제출) | 독후감 80점 이상<br>통과자에 한하여 구술시험 | P / F로<br>부여 | 단계 합격시<br>2단계 시험<br>자격 부여 |
| 2단계 | 글쓰기 시험<br>(교재 내용 이해도 평가 / 논술 시험) | 80점 이상 통과                   |              |                           |

라. 전산영역 이수면제 기준 및 자격: 전산영역의 경우 이수요건 폐지로 인하여 이수면제 제도 폐지

- **신청기간** : 2015.12.01(화) ~ 2015.12.11(금) 17:00 까지
- **신청장소** :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멀티미디어교육관 507호
- **신청자 유의사항**
  - 가. 2015-2학기 현재 상기와목을 수강 및 이수한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나. 본 제도는 일정능력보유자에게 과목이수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학점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 다. 신청자격이 있어도 본 이수면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목이수를 면제받을 수 없음.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람(tel. 031-201-3401~5)
- **제출서류**
  - 가. 신청서 1부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나. 증명서류 원본